

0C-II-5. 투명 교정장치를 이용한 치주염 환자의 전치부 치아 부분적 이동

김현성*, 장현선, 김병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치주 질환은 치주 조직을 파괴하여 치아의 회전, 기울어짐 등의 병적인 치아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치주 - 교정 복합 치료는 병적으로 이동한 치아를 원래의 위치에 배열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미성 까지 부여할 수 있다.

Kessler(1976)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있을 때 교정력을 가하면 좀 더 빠른 조직 파괴가 나타난다고 했으나 최근에 Nelson(1997), Re et al(2000) 등은 치주 치료 후에는 교정 치료가 비적응증이 아니라 오히려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교정치료 중에도 질병의 활성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치주 - 교정 치료가 상악 악궁에 고정형 교정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일부는 간단한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치아의 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전치부의 총생(Crowding) 및 간격(spacing), 순측으로 병적으로 이동된 치아에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한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재료

만성 치주 질환 환자에 Cause-related periodontal therapy를 시행하고

Case I: 상악 전치부의 순측 병적 이동 (54세, 남성)

Case II: 상악 전치부의 순측 병적 이동 (32세, 남성)

Case III: 하악 전치부의 총생(Crowding) 및 순측 병적 이동 (33세, 여성)

에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하여 치아의 이동을 도모 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투명 교정장치는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석고 모형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치아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치아 전체를 감싸는 구조이므로 치아의 이동에 효과적, 효율적이다.

따라서 투명 교정 장치는 비교적 간단한 치아의 이동, 즉 총생, 간격, 악궁의 확장 및 축소에 효과적인 장치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치아의 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